

## 생분해성 포장재 활성화 위해 노력 합병 통해 제2의 도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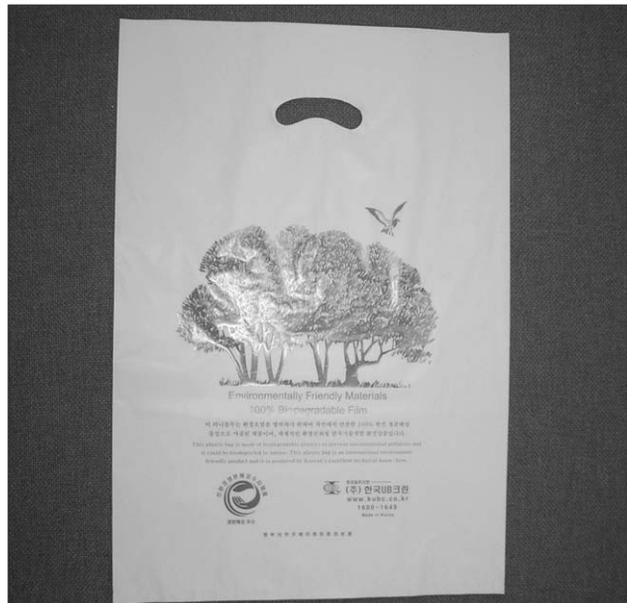


전 동 훈  
(주)한국UB크린 대표이사

지난 달 4일 환경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생분해성수지제품은 폐기물부담금과 포장폐기물발생억제 대상에서 제외됐고, 생분해성수지로 만든 비닐식탁보와 도시락 용기도 일회용품 규제대상에서 빠졌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2012년까지 폐기물부담금이 평균 10배 이상 인상되는 일반 플라스틱제품과 달리 생분해성수지제품은 규제가 대폭 완화돼 수요가 늘어날 전망이다.

생분해성수지제품은 전분, 셀룰로오스 등을 이용해 만든 플라스틱 제품으로 사용 후 폐기하거나 버렸을



▲ 환경을 고려한 생분해성 쇼핑백



▲(주)한국UB크린의 공장 내부

때 박테리아 등 미생물에 의해 물과 이산화탄소로 분해된다.

자원절약법 개정에 따라 생분해성 수지제품은 친환경상품진흥원 환경인증마크를 받았거나 인증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뜻하며, 현재 51개 업체 147개 제품이 생분해성수지 제품으로 인증받았다. 생분해성수지제품은 쓰레기종량제 봉투를 비롯한 봉투류, 일회용 도시락용기와 식탁보, 컵, 숟가락, 포크, 도마, 수세미, 화분용기 등을 만드는 데 다

양하게 쓰이고 있다.

환경인증을 받은 생분해성 수지제품은 시행 첫해인 2003년 45개 제품(27개 업체)에서 2004년 45개, 2005년 97개, 2006년 138개, 2007년 상반기 147개 제품으로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이처럼 친환경제품인 생분해성 플라스틱 제품에 대한 관심은 나날이 높아져 가고 있으며 기업들 역시 앞다투어 제품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환경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 생분

해성 플라스틱 제조업체인 두업체가 합병하여 제2의 도약을 맞이한 기업이 있다.

생분해성 AP, PLA, PCL을 이용한 용기, 필름 가공연구에 박차를 가했던 (주)진저스와 생분해성 수지를 이용한 친환경 무공해 제품인 무공화(브랜드명)를 제조 유통한 (주)이레푸른나라가 합병하여 2006년 7월 설립된 (주)한국UB크린(대표이사 전동훈)은 생분해성 포장재 제조 대표업체로 자리 매김하기 위해 야심차게 출발한다.

## KOREA UB CLEAN

이 업체는 같은 해 8월 생분해전용 기계설비를 개발 착수하고, 10월 대상(주) 중앙연구소와 공동 R&D를 통해 기계설비를 완료하고 제품개발에 주력하게 된다.

그 후 환경마크 7종을 획득하고 생분해성 수지를 이용한 쇼핑백, 물백, 쓰레기종량제봉투, 관공서 쓰레기봉투, 음식물 쓰레기봉투, 전분트레이, 전분용기 등의 제품을 출시, 제품에 환경마크를 부착하여 제품에 대한 정확한

환경정보를 일반인에게 제공하고 있다.

전동훈 사장은 2002년 정부정책의 일환으로 1회용품 사용을 규제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환경부가 즉석 가공식품용도의 포장용기를 규제하고 친환경생분해성 용기를 사용 유도하게 함으로써 생분해성 플라스틱 산업이 더욱 활성화 될 것을 염두해 두고, 발빠르게 차갑고 뜨거운 용도의 Microwave 8개 제품

의 생분해성 식품용기를 개발하여 국내 대형마트인 코스트 코코리아에 납품했다. 또한 LG패션에는 비닐봉투를, 인터컨티넨탈호텔에는 도시락 용기를, 교동한과에는 제품 포장지를 각각 납품하였다.

또한 한국UB크린은 크라운, 풀무원, CJ푸드, 신세계, 삼성전자, 대한항공, 한국철도 공사, TGI, 롯데리아, 2001 아울렛, 빙그레, E마트, 홈플러스 등과 협력을 이루며 생분해성 수지 제품의



◀ 생분해성 식탁보와 도시락 용기

활성화를 이끌고 있다.

특히 한국UB크린은 환경부 국정감사 제안 및 대체재질적용 권유로 2005년도 생분해성 종량제봉투 시범실시가 시작되면서 필름분야에 쇼핑백, 쓰레기봉투, 롤봉투, 멀칭필름 등을 출시하였고 산업용완충재 리그린폼 완성 등 제품의 안정성 및 기술적 검증에 인증 받아 조달청 수의 계약을 통해 여러 지자체에 쓰레기종량제봉투를 공급하고 있다.

생분해성 수지 제품 활성화에 아낌없이 투자하고 있는 한국UB크린의 전동훈 사장은 충북 청산 농촌태생으로 농업용 폐비닐 때문에 재배장애, 소각시 오염발생, 산불 및 화상유발 등을 겪으면서 씩는



▲ 생분해성 재사용 봉투

플라스틱에 대한 재질에 자연스레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1999년 원자재를 이용하여 직접가공을 해봄으로써 생분해성 수지에 대한 연구를 시작했다. 고분자이론과 실습을 통하여 수 많은 실패를 거듭하면서 학계, 업계 전문가들에 자문을 통하여 생분해성 포장 업계에 발을 들여놓게 됐다.

전 사장은 “아직 생분해성 제품은 일반 제품에 비해 가격경쟁력이 떨어져 큰 매출을 기대할 순 없지만 점차적으로 그 시장이 넓어져가면서 각광받고 있고 환경문제의 큰 관심으로 정부도 생분해성 포장재에 대한 사용 유도를 강화하고 있다”며 “앞으로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 다양한 품목을 통해 시장을 넓혀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현재 한국UB크린은 쓰레기종량제봉투류, 일회용 도시락용기외에 세탁소 비닐커버, 우산용 비닐봉지, 정기간행물 구독 봉투 등을 생분해성 수지로 대체할수 있도록 영업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글로벌 마케팅

을 통해 관광지역 및 법률 규제로 대체재질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일본, 미국, 태국, 호주, 말레이시아 등에 제품을 공급할 계획이다.

이미 세계 각국의 친환경소재를 찾는 해외바이어들이 한국UB크린에 제품을 문의하고 있으며 수출유망사업으로 글로벌 전략을 한 중국대명현과 월50톤 계약을 체결하는 성과를 이뤘다.

또한 코트라 홈페이지에 생분해성 수지 제품 관련 업체로 링크되어 있을 정도로 한국UB크린은 세계로도 뻗어가고 있다.

전 사장은 “원칙과 정직을 바탕으로 고객에게 신뢰를 주고 환경을 지키는 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객에게 생분해성 포장재를 사용하도록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활성화 계기를 만들어 친환경적인 생분해성 제품의 필요성을 직접 느끼게 하겠다는 전 사장.

자연을 만들어가는 기업으로 성장할 (주)한국UB크린의 행보를 기대해 본다. ☐

이한열 기자